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http://www.mke.go.kr

보 도 자 료

G20 SEOUL SUMMIT 2010

2010년 10월 29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소프트웨어진흥과 유법민 과장(2110-4780), 김신정 사무관(4781)

「WBS 프로젝트」 모바일SW, 무인기SW 등 5개 컨소시엄 확정

- 병원 SW, 자동차 SW는 재공고 · 연내 확정 예정 -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WBS 심의위원회를 개최, 올해부터 '13년초까지 2년 6개월간 추진되는 「WBS(World Best Software) **프로젝트**」 1차 과제를 수행할 **5개 컨소시엄을 확정**하였음

□ 동 사업은 금년 2월 SW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립한 범부처 「**SW 강국도약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형 SW R&D 사업**으로

○ SW기업 역량 강화와 개발SW의 상용화를 달성하기 위해 **SW중소기업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수요대기업은 상용화를 지원**하는 협력 모델을 지향함

○ 동시에, **개발SW에 대한 지재권**은 주관·참여기관 관계없이 **SW업체에게 부여**하여 SW업체의 수요기관에의 종속화를 방지하고자 하였음

* **일반R&D** : 주관기관에게 지재권 부여
* **WBS프로젝트** : 주관기관/참여기관 관계없이 SW개발기관에 지재권 부여

구분	기존 SW 원천 R&D	WBS프로젝트
지원기간	5~7년	2~3년
컨소시엄	제한사항 없음	**SW업체·수요기관 참여 의무화**
지재권 부여	주관기관	SW개발업체

○ 지난 2월 「WBS 프로젝트」 사업 추진 발표 후, 6개월간 300여명의 전문가 참여를 통해 도출한 1차 **7개 과제***에 대한 사업 수행기관 공모 결과, **14개 컨소시엄이 접수**되었으며 (평균 경쟁률 2:1)

* 과제별 상세내용 ⇒ 이전 보도자료(7.7일자) 참고

○ 평가위원회(10.11~10.12)와 심의위원회(10.27)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5개 과제의 컨소시엄**을 확정하고, **2개 과제**는 보다 완성도 높은 사업 수행을 위해 재공고 후 보완·선정하기로 결정

◈ **(확정) 무인기SW**(한국항공), **모바일SW**(인프라웨어), **보안SW**(안철수硏), **영상진단SW**(인피니트헬스케어), **교통SW**(스마트카드)

* 주관기관만 기재, 컨소시엄별 평균 7.8개 기업 참여

◈ **(재공고) 병원SW·자동차SW** ⇒ 상세내역 별첨 「선정결과」 참고

* 실질적인 개발물·상용화 실적을 위해 강도 높은 평가 진행

□ 최종 선정된 **WBS 수행 컨소시엄의 특징**으로는

○ 대부분의 정부 지원금을 **중소기업이 사용**하고 **중소기업이 주관기관 역할**(5개중 4개)을 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혜가 크고

* (지원금 사용비율) 중소기업 82.7%, 비영리기관 14.8%, 대기업 2.6%

○ 대기업인 관련 업종의 **주요 사업자**가 **수요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발SW의 성공적인 상용화**가 이루어져 성공적인 **대중소 상생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무인기) 픽소니어-**KAI**, (모바일) 인프라웨어-**SKT**, (보안) 안철수연구소-**인터넷진흥원**, (영상진단) 인피니트헬스케어-**KT**, (교통) **스마트카드**-LG CNS

□ 지식경제부는 그간 기획, 평가 과정과 같이, World Best라고 할 수 있는 **명품 SW 도출**을 위해 과제 수행 역시 **철저히 관리할 계획**

○ 개발 결과물의 성능만 제대로 나오면 되는 HW와 달리, **개발 각 과정이 성능과 유지보수력을 결정**하는 SW의 특성을 반영하여

- 국내 SW R&D 최초로 SW품질관리 전담기관(SW공학센터)을 지정하여 **SW 개발 全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문서화시키는 품질관리**(Quality Management)를 실시하고

○ 또한 **마일스톤점검**(반기) 및 **품질관리**(상시)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과제의 계속·탈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

□ **조 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금번 「WBS 프로젝트」는 선정된 과제 내용뿐만 아니라 **개발프로세스 평가·관리**에 있어서도 향후 SW R&D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아울러,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SW 개발에 필수적이므로 **주요 산업 수요자 중심의 Top-down 기획**을 추진하여

○ 모바일, 에너지, 국방 등 **국내 기간산업에서 필요한 핵심 SW**와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한 패키지SW** 등을 도출하여 추가적으로 「WBS 프로젝트」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음

별첨1 WBS 컨소시엄 선정 결과

구분	과제	선정결과	중소기업	대기업	기타	지원액
선정	무인기 SW	KAI 컨소시엄 (7)	픽소니어, 에이텍, 영풍전자, 코츠테크놀로지, 에어로매스터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5억원
	모바일 SW	인프라웨어 컨소시엄 (8)	인프라웨어, 이노에이스, 포비커, 뮤텍소프트, 티비스톰	SK텔레콤, SK텔레시스, 삼성전자	-	60억원
	보안SW	안철수硏 컨소시엄 (5)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 제이모바일, 가림정보기술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0억원
	영상진단 SW	인피니트 컨소시엄 (10)	인피니트헬스케어, 클리니컬이미징솔루션, 엠아이웨어	KT	서울대병원, 서울여자대,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이화여자대, 건양대	25억원
	교통 SW	스마트카드 컨소시엄 (9)	한국스마트카드, 코아게이트, 티모넷, 솔라시아, 에이텍, 인포트러스트	LG CNS	서울대, 전자부품연구원	20억원
재공고	자동차 SW	-	-	-	-	(24억원)
	병원SW	-	-	-	-	(30억원)
7개 과제		**5개 컨소시엄**	**22개 중소기업**	**6개 대기업**	**11개 비영리기관**	**240억원**

* 재공고는 11.1일～11.22일, 22일간 진행 예정

별첨2 「WBS 프로젝트」 지원과제 내용

1. 항공기 SW 무인항공기용 표준 솔루션 및 Test-bed 개발

□ 과제 개요

○ 군/민수 무인기에 적용하기 위한 **공통 SW 솔루션***을 개발하고 플랫폼의 성능검증 및 안정성 평가를 위한 **Test-Bed를 마련**하여 개발된 플랫폼의 시험 및 검증까지 추진

* 무인비행용 다기능 미들웨어, 개발도구, 시험환경 등

○ 항공 선진국은 동 기술을 정치·경제측면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기술이전을 금지***하고 있어 **자력개발 필요**

* 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 규정에 의거 수출제한

□ 개발 내용

○ 무인 실시간비행 제어가 **다양한 기종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자동비행제어, 자동항법 등 통합 기술 개발**

* 영상감지, 지능형 안전비행, 임무통제 등 기존 기술 개량 및 新기술 개발

○ **무인기 SW 통합관리 체계 구축**

* 기술정보 제공, 운용기술 지원, 신뢰성 검증, 무기체계 등 타체계와 연계 지원

○ **무인기 표준 SW Test-Bed 개발·검증**

* 통합시험시스템, HILS(Hardware In the Loop Simulation), 지상·비행 시험검증 System 개발

□ 개발 효과

○ 개발 또는 양산 예정인 **무인기 사업*에 적용, 해외시장 진출** 가능

* 무인기 신규 창출수요 : 5년간('12~'16년) 해외 31조원, 국내 2,200억원

* 사단 무인기(육군, '10년부터 개발), 차기 군단 무인기(육군, '11년 이후), 농업/방제/해양경찰청용 무인 헬기(유콘시스템/원신스카이텍/한국헬리콥터, 운용중)

2. 모바일 SW 개방형 웹 플랫폼 개발

□ 과제 개요

○ 현재 아이폰과 구글이 주도 하고 있는 **스마트폰 플랫폼**은 향후 2~3년내 **HTML5를 기반으로 웹 플랫폼으로 진화·확장 예상**

* 스마트폰 SW 플랫폼 시장 규모: '09년 9,067억원 → '13년 1조 6,129억원
* 출처 : Apple 2010 WWDC, Google IO 발표 내용

○ 국내 업체가 주도 가능하고 글로벌 플랫폼으로 육성이 가능한 **HTML5 기반 개방형 웹 플랫폼 및 웹 응용 프레임워크** 개발

* 일차적으로 스마트폰용으로 개발, 2차적으로 웹패드, eBook 등 다양한 emerging device들에 확장 적용

□ 개발 내용

○ 개방형 웹 플랫폼은 유무선 통신과 방통융합의 기본 플랫폼으로써 **다양한 컨버전스 환경**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개발

◈ HTML5, CSS3, Widget2.0, XHR Level2 등 차세대 웹 표준 기술
◈ 단말기 및 네트워크(CDMA, WiFi) 제어를 위한 미들웨어 프레임워크
◈ Multi Screen 지원을 위한 UI, 다양한 화면 효과 지원을 위한 그래픽 라이브러리 기술
◈ 데이터 및 콘텐츠 공유를 위한 Web Sync, Web 응용 프레임워크 기술
◈ Web 기반의 단말 내부 자원 접근 인터페이스, 보안, 권한 제어 기술
◈ Web Application, 라이브러리 개발을 위한 저작 도구 환경

□ 개발 효과

○ **해외기술에 의존**하여 발생하였던 **문제**(ActiveX, 보안, 인증 등)**를 해결**하고 PC, 모바일, 차세대 단말기에서 상용기술 개발여건 확보

○ 클라우드 컴퓨팅 등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해 **스마트폰, TV, PMP, e-Book 제품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본 기술을 통한 국내시장 점유율 '12년까지 12% 목표

3. 보안 SW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

□ 과제 개요

○ 개방형 모바일 플랫폼 등장(WIPI 의무화 폐지 '09.4.)과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 증가로 **새로운 모바일 보안 위협**에 대한 우려가 고조

* 모바일 악성 코드로 인한 정보 유출, 금전적 손실, 서비스 거부 등과 같은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모바일 SW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

○ PC 기반 글로벌 백신 업체*들이 **모바일 OS를 지원하는 백신**에 방화벽, WiFi 접근 제어 기술 등을 활용한 제품을 출시 추세

* Symantec, McAfee, Kaspersky 등

□ 개발 내용

○ **모바일 악성코드를 검사·치료**하며, **악성 코드의 행위를 실시간 감시하는 SW 기술 개발**

☞ 악성행위 모니터링 및 대응, 악성코드 샘플 수집 인프라 구축, 애플리케이션 악성코드 탐지 기술(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 개발 효과

○ **국내 모바일 보안 우려 해소** 및 **해외 스마트폰 보안시장 개척**

* 단말제조사, 이동통신사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모바일 보안 솔루션의 경우 수출 경쟁력 확보도 가능

○ 국내기업들이 백신 분야에 경쟁력이 있어 **완성도 높은 모바일 보안 솔루션**이 개발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세계) 스마트폰 : 840억불('10년) → 2,796억불('15년), 모바일 보안 : 16억불('10년) → 39억불('15년)

* (국내) 스마트폰 : 1.4조원('10년) → 4.7조원('15년), 모바일 보안 : 48억원('10년) → 223억원('15년)

4. 영상진단 SW 지능형 영상진단 및 치료지원 시스템

□ 과제 개요

○ **영상기반 진단**(PACS*) 및 **치료 과정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하는 **지능형 영상 진단 및 치료 지원 시스템 개발**

*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 임상지원을 통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보장하는 SW 확보

○ **SaaS 모델**을 도입하여 **해외 수출용 의원급 영상 진단 솔루션**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중앙집중형 서비스로 개발 추진**

* Software as a Service, 온라인 임대 서비스

□ 개발 내용

○ CT, MRI, PET 등 **첨단 진단장비를 활용**하고 **컴퓨터 도움 진단, 병별 판독 시스템을 통합화**한 영상 진단 지원 시스템 개발

- 임상 검증된 영상처리 기반의 CAD(Computer Aided Diagnosis), 지능적 영상처리 알고리즘*, 지능적 전처리 서버 솔루션, 전용 뷰어, 최적화된 병렬 진단 솔루션 등

* 대용량 3D/4D 자료를 표시하기 위한 고성능 볼륨렌더링, 고속 영상 분할·분석 도구, 다중 영상 정합 기법 및 영상 융합 표시 기법

○ **엔터프라이즈급 병원 협진 지원을 위한 통합형 시스템 개발**

* 심혈관센터, 방사선종양학과 등 다양한 파트에 부합하도록 설계
* 메타데이터와 영상데이터의 통합 표준화, 연동 및 통계 기능

○ 모바일 환경, SaaS 환경을 고려하여 **서버 기반 컴퓨팅 및 클라우드 기반 컴퓨팅에서 운영 가능한 시스템 개발**

□ 개발 효과

○ 진료시 요구되는 다양한 영상들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하여 **의료진의 진료 편의성 제고** 및 **통합 영상의료장비산업에서 세계시장 선도**

* 유방암, 대장용종, 폐결절 등을 영상처리기반의 CAD 알고리즘을 통해 사전에 영상을 판독해줌으로써 진료의 효율성 증대

* 심혈관센터, 방사선종양학과 등 다양한 분과에서 활용 가능

5. 교통 SW AFC 표준 솔루션 개발

□ 과제 개요

○ 수출을 위해 **범세계적인 호환과 연동**을 보장하는 교통 분야 통합 요금 징수시스템*의 **운영모델·표준규격을 도출**하여 카드, 단말기, 집계·운영센터, 지역 호환 센터에 이르는 **통합SW 솔루션 개발**

* Automatic Fare Collection

○ **국내 기업**이 AFC사업에서 우수한 Reference*를 가지고 있으나 **해외 운영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 수출이 어렵고,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전체 시스템 구성요소와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표준을 기반으로 솔루션 개발을 진행 중**임

* 수도권 교통카드 이용률이 90%를 넘어 세계 최대의 성공사례로 평가

□ 개발 내용

○ **표준 AFC 아키텍처 및 플랫폼 상용화 기술 개발**

◈ 국내외 표준분석, 데이터 처리 및 응용시스템 규격 설계, 데이터 인터페이스 설계 등 표준규격 개발

◈ 글로벌 다중매체(mobile phone, Paypass, RF-EMV card) 플랫폼과 연동한 유연한 확장성을 수용하는 솔루션 개발

◈ 비즈니스·기술여건에 따른 다양한 교통센터 운영모델 체계 개발

□ 개발 효과

○ 해외시장의 교통분야 통합요금징수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전세계 **전자화폐시장에서 주도적 역할** 가능

○ 가격·품질·운영 경쟁력을 확보한 SW 플랫폼 개발 및 시범·운영으로 **해외 AFC 센터 구축과 운영 사업권 획득 가능**

6. 자동차 SW AUTOSAR 차량 제어기 SW플랫폼 상용화 개발

□ 과제 개요

○ 차량 전장용 플랫폼의 국제 표준(AUTOSAR)의 완성도가 높아짐에 따라, **해외 주요 완성차/ 부품 업체**에서의 **AUTOSAR 적용 확대 추세**

* BMW, Daimler 등은 '08년부터 특정 모델(BMW X5 시리즈)에 부분 적용하고 있으며, '12년까지 모든 차량에 확대 적용 예정

○ 해외수출, 국내 기술 자립 측면에서 자동차 제조업은 **국제 표준 기반의 SW 기술력 확보 필요**

* 국내 전장 부품업체들이 유럽 자동차 회사로부터 적용요구 받는 사례 발생

□ 개발 내용

○ AUTOSAR 기반 **상용 설계도구 및 플랫폼 상용화 기술 개발**

* 플랫폼 생성 및 컴포넌트 설계 통합, 아키텍처·컴포넌트·네트웍 설계의 통합을 추진하고, AUTOSAR OS 개발

○ 차량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ISO 26262 인증 추진**

○ **완성차 양산 적용**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 부품사의 샤시용 및 바디용 제어기에 상기 개발된 플랫폼과 도구 적용하여 표준 플랫폼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테스트를 수행

□ 개발 효과

○ 해외 의존적인 **자동차 전장 SW 플랫폼 및 도구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 개발 기반확보 및 전세계 공급망에서 주도적 역할 가능

* ECU 등 핵심 부품에 대해 2013년 50%, 2015년 95% 수입대체 기대

○ AUTOSAR 기반의 부품모듈 확대를 통한 재사용성 증가로 **완성차업체**는 **공급처 다변화를 통한 원가 절감**을 하고, **부품제조업체**는 **글로벌 기업에 납품 가능**

* OS, MCAL 등 핵심개발 모듈 SW의 수출 확대로 국내 SW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 선점기회 확대

7. 병원 SW 글로벌 의료정보 솔루션 개발

□ 과제 개요

○ **의료정보 솔루션의 공통 프레임워크 개발**을 이용한 서비스 기반의 조립형 **의료정보 솔루션 수출 사업 체계 구축**

* 의료정보 솔루션 도입 확산을 지원할 수 있는 공통 인프라 기반 확보

○ 국내 최고의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최첨단 의료 IT 융합 기술을 도입하여 **수출 가능한 헬스케어 서비스 핵심모델 실현**

□ 개발 내용

○ 상이한 병원환경에 부합하고 원활한 의료정보 활용을 위한 **SOA**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기반의 유연한 시스템 구조 개발**

* 재사용성, 조립성,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SW 기술 중점 개발

○ **헬스케어 핵심 공통 서비스 모델 개발**

◈ 외래/입원/응급/건강증진/ICU/수술의 전자의료기록별 공통 Task 도출
◈ 의료 표준용어 서비스(SNOMED-CT, UMLS, LOINC, ICD9-CM 등) 개발
◈ 환자 안전 향상을 위한 근거 중심 기반의 CDSS 컨텐츠 및 표준 진료 지침/프로세스 개발
◈ 레거시 및 3rd 파티 솔루션과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국제 표준 기반의 인터페이스 개발(DICOM, HL7, IEEE 11073, IHE PCD)
◈ 환자의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한 국제 표준* 기반의 의료정보 교류체계 개발(CDA/CCR/CCD, IHE-XDS 등)

*HIE(Healthcare Information Exchange), RHIO(Regional Health Information Organization)

□ 개발 효과

○ 정부주도로 **공공의료 정보사업 추진중인 동남아 국가**(말레이지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대해 수출**

* 국가별 사업파트너를 통한 공동 공략을 통해 업무 및 비용 효율성을 확보하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 사업성 극대화

○ **의료SW 개발·유지, 컨설팅 인력 양성**